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0월 10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육군 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장정남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인민군당집행위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

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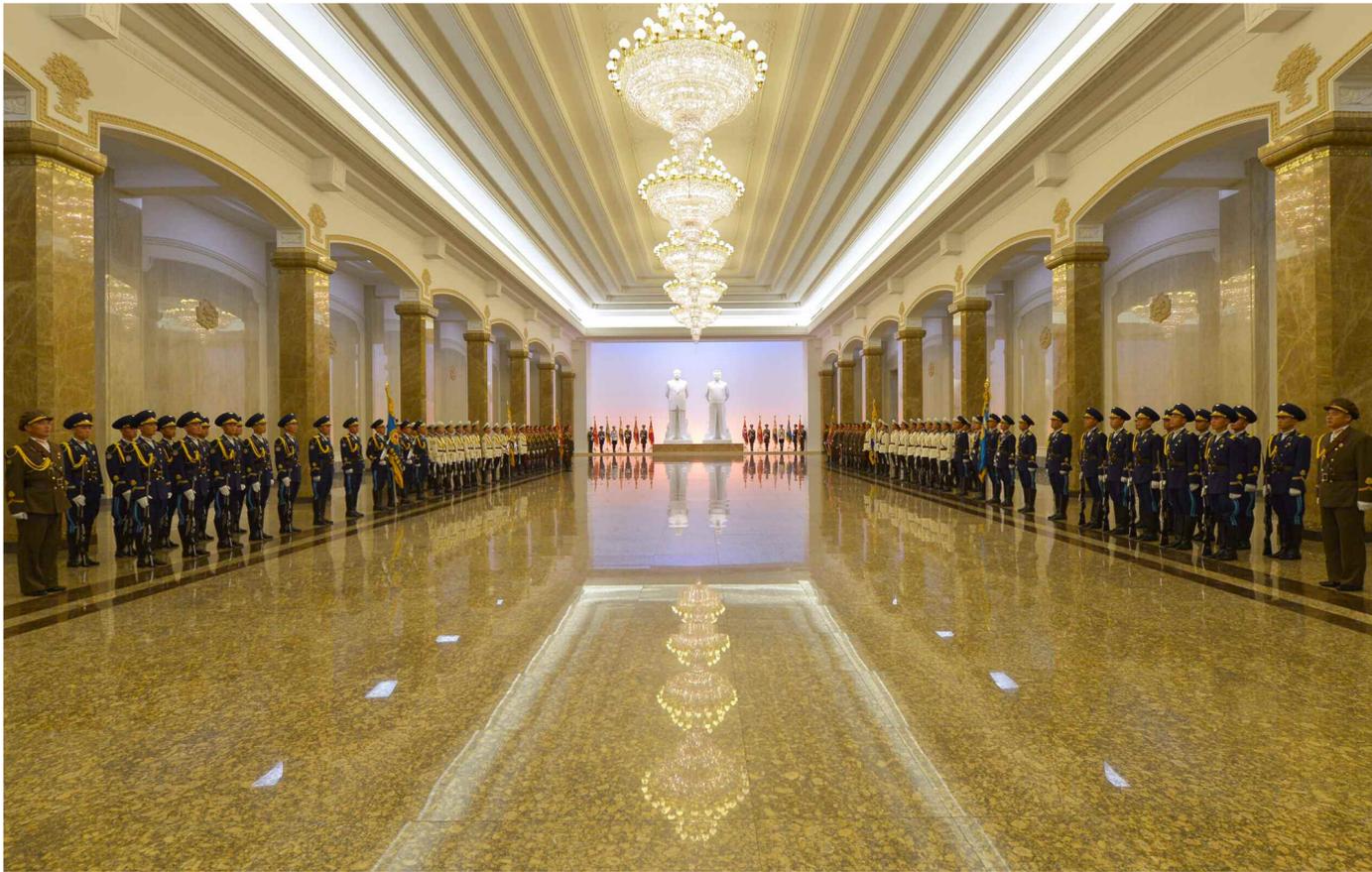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버지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의 풍흥네거리에 특색있게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준공되였다.

선군문화의 중심지인 평양의 웅장 화려한 면모와 잘 어울리게 초고층의 쌍기둥을 이루며 현대적으로 건설된 교육자살림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자들에게 일떠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며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성국가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인재들을 키워내는 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마련해주신 교육자살림집은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와 생활사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로 솟아 빛나고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궁궐같은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섬으로써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부러운것없이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에 전심전력하면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이 9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입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 미래사랑으로 지식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가 삼가 꽃다발을 드리였다.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문명덕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조선인민군 장병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현대적인 살림집을 준공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은정속에 각종 편의시설들과 소공원, 특색있는 실내휴식터들까지 꾸려져있으며 현대적인 가구와 비품들이 방마다 그쯘히 갖추어진 궁궐같은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누리게 된 이 행복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의 교육자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다.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원들을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육자살림집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세워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어 교육자살림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온갖 조건이 다 갖추어진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시고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한가지라도 더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천어비의 다심하고 한량없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충정의 일념으로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결사판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 깨끗한 랑심과 정성을 다 바쳐 불철주야의 전투를 벌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살림집을 번듯하게 완공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교

육자들이 있지만 령도자의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밑에 교육자들을 위한 궁궐같은 살림집이 일떠선 경이적인 현실은 일찌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없었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려는 조선의 교육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높이 솟아오른 현대적인 교육자살림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있어 끝없이 비약하며 번영할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게 될것이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교육자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부강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앞당겨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자기의 위치와 임무에 맞게 혁명인재양성사업에서 앞장서야 하며 대학교육의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후대교육과 인재육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지식경제시대, 두뇌전력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백두산대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골간들을 더 많이 키우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사랑과 은정이 깃든 살림집들과 시설물, 비품들을 알뜰히 거두고 애호관리하며 편의시설들을 잘 운영하여 사회주의생활문화확립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영웅부대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최상 최대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박찬 투쟁의 앞장에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당의 령도따라 내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세상에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자고 호소하였다.

준공식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또다시 환영곡이 울려퍼지는 속에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준공식장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새로 일떠선 살림집을 돌아보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신 궁궐같은 살림집에 입사할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꿈같은 은정을 또다시 받아안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새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태형철동지, 김일성종합대학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태희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살게 될 살림집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새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온갖 조건이 다 갖추어진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시였으며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한가지라도 더 마련해주시려 마음쓰시며 한량없는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에 겨워 솟구치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걱정

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새 살림집에서 교수와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면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후대교육과 인재 육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

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백두산대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골간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자기들앞에 맡겨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포등판개간전투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포등판개간전투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용대한 대자연개조상을 받들고 강인함으로 달려간 통리인민유원지관리소 로동자 장성일, 문수물놀이장관리소 로동자 리명실,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설계원 황민향, 대성지도국 부원 백려명, 무역성 양성생 박영재는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같이 말은 입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힘있는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을 고무하였다.

평양맥주공장 로동자 김해련은 세포등판개간전투에 참가한 남편과 함께 당정책을 빛나게 관철해나갈 한마음으로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조선중앙사진전사 기자 리철명은 전투현장에서 참신한

보도활동으로 돌격대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각사무국 산하단위 로동자 손설송, 평양시의약품관리소 로동자 김현실은 대규모 축산기지건설에 한몫할 열의드높이 많은 후방물자를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무역성 산하단위 로동자 김해영은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후방물자를 보내주어 그들을 위훈창조로 불리이끄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묘향지도국 산하단위 부원 리철준도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세포등판개간에 적으나마 기여할 일념 밑에 혁명사적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전해영은 많은 후방물자를 보내주었으며 조선통풍경제연합회 산하단위 로동자 강정아도 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이

었다.

채취공업성 산하단위 연구사 허일협과 해외동포사업국 로동자 허영혁형제는 세포등판개척지의 영예를 간직하고 일도 잘하고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보건성 구강종합병원 의사 권한림, 중앙과학기술보사 연구원 김기성, 청류관 료리사 김미향, 칠명무역회사 부원 최경일도 전투장에서 위훈을 떨치면서 지원사업을 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한한 행복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세포등판개간전투를 계속 힘있게 지원하며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 전권대사가 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 전권대사가 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 전권대사가 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 전권대사가 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 전권대사가 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이 9일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 전권대사가 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니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무라야마 도모히코 사무국장이 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국제적권위와 불패의 위력

세계에는 정당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정치리념도 저마르고 명칭도 형형색색인 수많은 정당들중에는 집권당도 있고 야당도 있다.

하지만 우리 당과 같이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고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고있는 당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파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되어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마음속으로 조영희 불러보아도 저도 모르게 숨얼얼하면서 가슴뜨겁게 어려오는 위대한 초상들이 있다.

우리 인민과 인류의 위대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촉부해주시는듯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상!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이고 우리 당의 권위는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신 높은 권위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당의 장군지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다.

력사의 그 어느 갈라목을 펼쳐보아도, 세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조선로동당처럼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고 수령의 권위로 존엄높은 그런 당은 없다. 우리 당처럼 수령의 혁명활동을 그 뿌리를 두고 수령의 혁명활동의 파장을 자기 력사로 아로새겨온 당도 없다.

19세기 후반기와 20세기 전반기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적당들이 생겨났다. 그 당들은 거의나 새로 창건된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당들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떨어져나오거나 기성의 당들의 강령을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조선공산당과 소비에트공산당의 창건자인 레닌도 여러 맑스주의소조들을 통합하여 로씨야에서의 혁명적프로레타리아당의 첫 색인 베제르부르크《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을 조직하였다. 그후 로씨야사회민주당 로동당 제 2차대회에서 맑스주의적당 강령을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제 2국제당에 속한 기회주의적인 당들과는 구별되는 로씨야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였다.

도이칠란드공산당 창건자들은 칼 킵케호트, 로자 룩셈부르크 등은 기회주의적인 사회민주당에서 떨어져나와 《독립》사회민주당을 조직하고 그 경험에 기초하여 새 당을 짓는 방식으로 혁명적당을 내었다. 유럽은 물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혁명적당들의 력사를 보면 이와 비슷한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당의 창건자, 평도자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하고 그 평도적계가 확고히 서있지 못했으므로 하여 로동계급의 정당들은 시련과 난관을 겪는 과정에 매어지 머리를 쳐드는 기회주의적영향을 당에서 제거하려고 그 력사도 얼룩덜룩해졌으며 종당에는 비분, 해산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로 하여 당이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존엄도 잃게 되었다.

반면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간고한 항일의 투쟁속에서 그 력사적뿌리와 전통을 다져내고 해양부 새 조국건설의 막한 나날속에서 창건된 가장 혁명적인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총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평도하시으로써 이 땅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실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평도 로씨야의 존엄한 유산이며 대원수님들의 유산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실험과 로고를 다 바치고계신다.

하기에 영구선군정치연구협회는 지난 해 4월 인터넷포럼에 게재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전환을 모시고 《고결한 충성의 화신》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고 평도자를 충정으로 받들어모신 위인을 세계는 알지 못한다. 가장 고결한 혁명적도덕의리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력사, 태양의 력사를 그토록 빛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백두산혁의 위인 경애하는 정주자의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이 당을 창건하고 이끌어오는 평도자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하는 추태를 부렸기때문이다. 그들은 나중에는 사회주의를 변질과 붕괴로 몰아갔다.

결국 한때 권위가 높다고 하던 이 나라들의 집권당들은 세상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말았다. 그 당들은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풍지박산이 되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선군혁명평도 로씨야의 존엄한 유산이며 대원수님들의 유산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실험과 로고를 다 바치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고 평도자를 충정으로 받들어모신 위인을 세계는 알지 못한다. 가장 고결한 혁명적도덕의리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력사, 태양의 력사를 그토록 빛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세인이 찬탄하는 당마크

◇ 세계 진보적정당들과 인사들이 우리 당마크를 보고 한결같이 이야기하는것이 있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로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인 당,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것이 바로 로씨야공산주의 로동자당-혁명적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주공화국 깡비라주의 혁신청년동맹 총서기를 비롯한 여러 나라 당수들과 인사들이 터뜨리는 격정의 목소리이다. 몇몇몇 우리 나라 영화 《당창건기념탑》을 본 로씨야 모스크바 은행 기에브리점 책임자는 당창건기념탑은 기념비적건축물로서 웅장화려한것만이 아니라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념비라고 생각한다.

조선로동당 마크에 마지와 낫과 함께 붓이 새겨져있는것은 당이 지식인도 중시하고 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고 감동깊이 말하였다.

우리 당마크는 세상사람들에게 조선로동당이 과연 어떤 당인가를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마지와 낫, 붓을 새겨넣은 당마크를 가지고있는 당은 이 세상에 오직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새겨져있다. 담고있는 정치사상적내용으로 보나 조형예술적으로 보나 우리 당마크처럼 완전무결하고 명백하며 독특한 당마크는 이 세상에 없다. 조선로동당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활동을 조직행하는 당이며 수령의 뜻에 전체 인민이 혼연일체로 굳게 뭉친 근로대중의 전위부대라는것을 상징하고있는것이 우리 당마크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로동계급의 가장 혁명적인 당,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것이 바로 로씨야공산주의 로동자당-혁명적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주공화국 깡비라주의 혁신청년동맹 총서기를 비롯한 여러 나라 당수들과 인사들이 터뜨리는 격정의 목소리이다. 몇몇몇 우리 나라 영화 《당창건기념탑》을 본 로씨야 모스크바 은행 기에브리점 책임자는 당창건기념탑은 기념비적건축물로서 웅장화려한것만이 아니라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념비라고 생각한다.

조선로동당 마크에 마지와 낫과 함께 붓이 새겨져있는것은 당이 지식인도 중시하고 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고 감동깊이 말하였다.

우리 당마크는 세상사람들에게 조선로동당이 과연 어떤 당인가를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마지와 낫, 붓을 새겨넣은 당마크를 가지고있는 당은 이 세상에 오직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로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지와 낫과 함께 인태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외국대통령이 받아안은 고귀한 지침

1974년 9월에 포고 공화국 대통령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과정에 제일 부러워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놀라운 경제건설성과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능동,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가 아니었다. 그에 비할바없어서 더 크고 소중한것이 그의 넋을 사로잡았고 그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그것은 다름아닌 수령과 인민간의 혼연일체였다.

수령은 인민을 친자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며 인민은 수령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화목한 대가정의 모습, 그는 진실하고 격동적인 그 모습을 우리 나라에 도착한 순간부터 체하고 느꼈습니다.

아버이수령님앞에서 너무 기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짓는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을 보면서, 수령과 당을 목속으로 사수 하리라고 언약같은 맹세를 담은 인민군구분대의 구호를 외으며서 그리고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방랑한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 나라 인민들이 얼마나 자기 수령을 따르고있는가를 가슴사 무지게 느끼었다.

그는 조선에 와서 보고 느낀 이 감정이 더없이 소중하였다. 포고대통령의 이러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여러차례 만나 나누시고 지방참관을 함께 동행 하주시고서 그 아갈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해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은 수령의 훌륭한 평도를 받지 못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이 수령의 유일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대 대한 구호를 제시하고 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있다고 하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령의 역할에 대하여 훌륭 생각하였는 대통령에게 수령은 혁명대오

안에서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 혁명적 수령의 평도를 받지 못하는 인민대중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휘관이 유유부단하면 전사들의 기본분열도 나빠지고 전투에서도 승리할수 없다. 지휘관은 전사들속에서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차근차근 말씀하시

였다. 천금같은 그의 말씀은 정직적독립을 고수하고 인민대중을 위한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대통령에게 큰 힘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그는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떠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올리었다.

《나는 가학에서 가르쳐주신 경표와 권오의 말씀을 귀중히 간직하고 앞으로 우리 인민을 이끌고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세계의 국가수반들이 공인한 위대한 정치리론, 탁월한 스승이시였다.

분사기자

한결같이 터뜨리는 격찬

올해 조선로동당은 존엄높고 위력한 필승불패의 당으로,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승리의 상징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조선로동당처럼 하나의 사상의에서 기초한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시대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를, 인류자주의의 전진과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이었던 당은 없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 《인민의 용맹도 미태도 다 맡아 안아주는 어머니 높》, 《혁명적당의 본보기》라고 높이 찬양하고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평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말에 조선로동당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여세를 전진해나갈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그이께서 수심상상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 탈선도 없이 성공적인 정치혁명을 펼치시어 빛나는 우리의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입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세 명의 혁명적당창건의 력사적업무를 완수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도 있어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베인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회 베인 전국위원회 위원은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로속한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이께서 수심상상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 탈선도 없이 성공적인 정치혁명을 펼치시어 빛나는 우리의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입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세 명의 혁명적당창건의 력사적업무를 완수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도 있어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베인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회 베인 전국위원회 위원은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로속한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이께서 수심상상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 탈선도 없이 성공적인 정치혁명을 펼치시어 빛나는 우리의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입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세 명의 혁명적당창건의 력사적업무를 완수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도 있어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베인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회 베인 전국위원회 위원은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로속한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이께서 수심상상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 탈선도 없이 성공적인 정치혁명을 펼치시어 빛나는 우리의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입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세 명의 혁명적당창건의 력사적업무를 완수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도 있어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베인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회 베인 전국위원회 위원은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로속한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이께서 수심상상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 탈선도 없이 성공적인 정치혁명을 펼치시어 빛나는 우리의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입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세 명의 혁명적당창건의 력사적업무를 완수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도 있어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베인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회 베인 전국위원회 위원은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로속한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이께서 수심상상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 탈선도 없이 성공적인 정치혁명을 펼치시어 빛나는 우리의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입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세 명의 혁명적당창건의 력사적업무를 완수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도 있어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베인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회 베인 전국위원회 위원은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로속한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이께서 수심상상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 탈선도 없이 성공적인 정치혁명을 펼치시어 빛나는 우리의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입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

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세 명의 혁명적당창건의 력사적업무를 완수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도 있어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베인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회 베인 전국위원회 위원은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로속한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미국은 조선남쪽에 일본, 남조선과 회담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핵합동공습까지 끌어들이었다.

사태의 엄중성은 미국의 군부당국자들이 남조선에 기여하여 군사적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면서 우리를 겨냥한 《맞출형제전력》이라는것을 공식발표한 직후에 이번 해상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진다는데 이었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인 미국의 핵무기상용도 모자라 미국과 남조선과회들의 해상무력과 미사일방위체계 등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힘

으로 압살해보겠다는 《맞출형제전력》은 본질상 우리에게 대한 핵전쟁위협을 증대이고 핵선제타격계획의 한걸음의 의미한다.

이러한 속에서 미국이 핵합동공습까지 동원하여 벌여놓으려는 위협천만만 해상합동군사연습은 엄중한 군사적대발이고 우리의 평화적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최근 우리는 긴장국세의 악순환을 막고 경제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념으로부터 주동적으로 여러가지 대화제안들도 내놓

았고 지난 8월 미국이 남조선과회들과 함께 《을지프리트 가터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을 때에도 최대한의 자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어제는 핵전략폭격기를 끌어들이고 오늘 핵합동공습을 들이밀면서 끊임없이 핵전쟁연습을 강행하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인내성있는 평화적노력에 역행하여 계속 인위적으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목적은 핵무기를 틀어던 우리 경제경제적 목적을 이루지못 하도록 방해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대결을 노린 저들의